

## 한일정상회담(08.10.24) 주요 내용

2009.10.22

제7차 아셈(ASEM)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살리기’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논의했다.

### □ 한일 정상회담 개최

- 제7차 아셈(ASEM)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짐 (2008.10.24)
  - 지난 7월 일본 도야코 G8 정상회의에 이은 두 번째 다자외교 무대인 이번 회의에서 금융쇼크에 따른 국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확고한 공조 필요성 합의
- 특히 이 대통령 취임 후 4번째인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지난 7월 일본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영유권 명기 강행으로 한일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열리는 것이지만 아소 다로 일본 총리와의 첫 대면인데다 세계 경제위기가 워낙 심각해 독도나 역사 문제 등 민감한 이슈보다는 금융위기 대책과 북핵 6자회담 공조 등에 초점을 맞춤
  -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아소 총리가 처음 만났는데도 대화 분위기는 정말 살가웠다” 고 언급

### □ 협의 내용

- 금융위기 확산 방지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합의
  -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논의 중인 G8 확대 개편시 경제 규모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 경험 등을 고려해 신흥경제국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아소 총리도 이에 공감
  - \* 기타 양국 관계의 개선과 북핵문제 등을 논의했으나 양 정상 간 대화의 화두는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에 쏠림

## □ 성과

- 한중일 3국과 아세안 소속 10개국 정상들은 회의에서 800억 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 조성을 2009년 상반기까지 완료토록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고, 역내 경제 감시 강화를 위한 별도 기구의 설립을 적극 추진키로 합의
  -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과 중국 일본이 80%를 담당하는 기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
  - \* 이번 아셈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이 이 대통령의 노력에 관심과 지지 표의

## <참고자료>

외교통상부([www.mofat.go.kr](http://www.mofat.go.kr))

‘이 대통령, 아셈 본회의, 아세안+3, 양자 정상회담서 ‘국제공조’ 강조’ (연합뉴스 08.10.24), ‘ASEM 오늘 개막’ (헤럴드경제 08.10.24) 등 국내 주요언론보도 내용 종합